

사회적 통합과 자살: 연휴가 자살자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 승 용**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사회적 통합이 평소에 비해 강해질 것으로 생각되는 특정 연휴기간에 자살자수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00-2005년 사망원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연휴인 신정, 구정, 추석, 성탄절 등을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연휴로 설정하고 일별 자살자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휴 이전 3일과 연휴 당일에는 자살자수의 감소가, 연휴 이후 3일에는 자살자수의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본가설을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혼인상태별, 연령별 자살양상의 차이를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휴기간의 자살자수 감소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혼인상태에 따른 자살양상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셋째, 고령자 집단에서 연휴기간 자살자수 감소양상이 명확히 나타난다. 단, 성탄절에는 젊은 연령대의 자살자수 감소가, 높은 연령대의 자살자수 증가가 나타난다. 넷째, 성탄절 이후의 자살자수 감소는 혼인상태 및 연령과 관계없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증대된 사회적 통합이 자살을 방지하지만, 사회적 통합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세대에 따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핵심단어: 자살양상, 연휴, 사회적 통합, 혼인상태, 연령, 가족적 가치

I. 머리말

한국 사회에서의 자살은 점차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한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살률은 1995년 11.8에서 2005년 26.1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06). 한해가 지난 2006년에는 자살률이 23.0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7).

전체 자살률이 몇 년 새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연령대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석사졸업 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한양대 김두섭 교수님, 서울대 강남준 교수님, 한양대 대학원 사회학과 인구분석 수강생들,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유정균 연구조교 등을 포함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한양대학교 인구 및 고령사회연구소 연구조교, | roiental@hanafos.com

에서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살을 더 이상 개인의 심리문제로만 방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자살률의 증가와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대로 언제 감소하며, 왜 감소하는가에 대한 국내연구는 거의 진무한 것으로 보인다. 자살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평소에 비해 적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시기가 분명히 존재한다. 때문에 자살이 감소하는 시기와 환경을 찾아내고, 감소하는 집단과 그 이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도한다면 높아져 가는 자살률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대처방안을 역으로 보다 명확하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자살의 증가가 아닌 감소의 시기와 감소하는 집단, 그리고 그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다.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정도(social integration)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도록 만든다. 뒤르켐의 시각에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자살이 점차 증가한다는 사실은 한국사회의 통합 수준이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부분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특정 시기에는 사회적 통합이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 때문에 월드컵과 같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의 가치로 모을 수 있는 의식이나 행사는 사회적 통합을 평소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통합의 변화는 자살양상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통합과 자살 간의 관계를 고려한 대부분의 지역단위 연구들에서는 통계적 분석을 위해 사회적 통합의 개념을 수치화하고 있다(Stack, 1980, 1985; Breault, 1986; Curtright & Fernquist, 1998, 2000; Fernquist, 2007). 이들은 뒤르켐의 구분에 따라 사회적 통합을 가족사회 통합, 종교사회 통합, 정치사회 통합 등의 차원으로 나눈다. 이후 각 사회의 통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혼율, 종교관련 서적 출판부수, 정치적 이벤트 등을 사용하고 있다. 거시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단위 분석이며, 지역 간 자살률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들이지만, 각 사회의 통합정도를 특정한 변수 한 두개로 대체함으로써 결과해석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 통합이 증대되는 시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의 자살양상을 나머지 기간과 비교한다면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수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통합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휴를 사회적 통합이 변화하는 시기로 받아들이고, 이 기간의 자살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살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시키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개인

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특정한 행위를 선택하게 만드는 사회 환경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사회 환경을 신정, 구정, 추석, 성탄절 등의 연휴(holiday)로 설정하고 사회적 통합의 변화와 자살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일별 자살자수를 파악함으로써, 연휴기간의 자살이 어떠한 변화양상을 나타내는가를 2000년-2005년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연휴의 의미가 혼인상태별로, 연령별로 다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구분에 따라 자살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가설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결과

1. 이론적 배경

1) 뒤르켐의 사회적 통합 개념

자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회학적 접근은 사회적 통합과 자살 간의 상관 관계를 주장한 뒤르켐의 '자살론(Le Suicide)'이다. 그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신질환, 인종 등의 비사회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비사회적인 요인은 부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곧 자살의 경향은 사회적 원인에 의거할 수밖에 없으며, 집단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원인의 핵심은 사회적 통합의 개념으로 연결된다. 뒤르켐은 사회적 통합의 차원과 정도에 따라 자살의 유형을 크게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등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자살의 사회적 원인을 다루면서 뒤르켐은 먼저 종교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종교가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특정 종교가 가진 종교적 개념의 특이함 때문이 아니라, 종교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본질은, 밀도 있는 집단적 삶을 교리와 의식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하나의 사회라는 측면에서 가족사회, 정치사회 등도 종교사회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가족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Gove, 1972; Danigelis & Pope, 1979; Stack, 1980, 1985; Breault, 1986; Krull & Trovato, 1994; Cutright & Fernquist, 1998, 2000). 특히 혼인상태, 이혼, 성별, 연령, 자녀유무 등의 변수들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뒤르켐의 가족사회 통합에 대한

논의는 가족적 가치가 강조되는 연휴기간의 자살양상에 대한 논의와 직결된다. 그가 말하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집합감정을 수치로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연휴기간에는 가족 간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증대되어 집합감정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집합감정의 강화는 사회적 통합의 강화로 이어지며, 곧 자살을 방지하는 '자살면역체계(suicidal immune system)'로 기능할 것이다.

2) 연휴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이론화

연휴가 가지는 사회학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주로 Etzioni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휴(holiday)의 기본적인 역할이 의식(ritual)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개념을 모두 연휴로 정의한다. 뒤르켐에 의하면, 세속적이고 반복되는 일상생활, 도구적 활동 등은 믿음과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며 동시에 개인주의를 증대시킨다. 때문에 사회는 공유된 믿음과 실행에 집중함으로써 끊임없이 자신을 재생산 하여야 한다. 여기서 의식(ritual)은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말 종교 활동 참가는 주중에 약해진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연휴는 사회참여와 결속을 강화시키는 초-주말(supra-weekends)적 성격을 가진다(Etzioni, 2000: 45).

연휴의 가능수행 방식을 공유된 신념의 강화로만 정의한 뒤르켐과는 달리 Etzioni는 각 연휴는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통합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연휴를 재통합 연휴(recommitment holidays)와 긴장관리 연휴(tension-management holidays)로 구분한다. 재통합 연휴에서는 연휴가 수행하는 모든 의식들이 공통된 신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된다. 전통적 성격을 지니는 연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긴장관리 연휴는 과도한 신념에의 집착을 완화시킴으로서 연휴의 통합적 기능을 간접적으로 수행한다. 예를 들어 연말에는 과도한 음주와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며, 반사회적, 반통합적이라고 여겨져 왔던 행동들이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행동들은 공유된 신념으로의 지나친 강요가 가질 수 있는 압박감을 해소함으로써 통합을 강화시킬 수 있다.

3) 일상생활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의 적용

자살을 하나의 일탈행위로 규정한다면 자살을 설명함에 있어 일탈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이론은 일탈행위에 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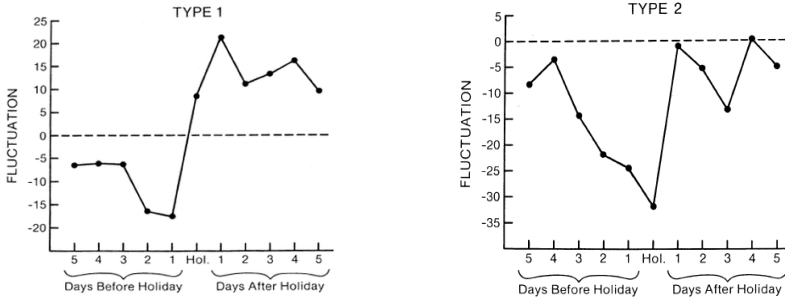
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일탈행위는 기회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중심 개념은 상황적 동기, 동료와 지내는 시간, 감시자의 부재, 구조화-비구조화된 활동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Osgood et al., 1996). 구조화된 활동은 예측 가능한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들을 자살이 발생하는 환경에 적용하면, 감시자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 동료와 지내는 시간은 감시자의 감시 속에 지내는 것과 동일하며, 자살을 실행하기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된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시간대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므로 자살 의도자가 자살을 하기 힘든 상황이 조성된다. 더불어 경기라는 하나의 목적을 공유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사회적 통합을 강화시킬 수 있다(Trovato, 1998). 연휴의 상황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휴기간 자살양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

연휴기간 자살양상에 대한 연구의 시작은 연휴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심리학의 입장에 대한 사회학적 반박이었다고 생각된다. 과거 서구 심리학자들은 연휴를 근심, 무력감, 연휴에 대한 그리움 혹은 좋지 않은 기억, 등으로 특징짓고 있다(Phillips & Liu, 1980: 47).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연휴에 자살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회학자들은 연휴가 자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였다.

연휴기간의 자살양상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은 뒤르켐의 논의를 확장한 'Death Dip'이다. 뒤르켐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사회와 통합되지도 않고 의식에 포함되지도 않는 개인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과 상관없이 자살을 행한다. 반면 반대의 경우 개인은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의식 이전에 자살자 수는 급감할 것이다. 이것이 'Death Dip'의 개념이다(Phillips & Feldman, 1973). Death Dip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통계적 연구결과, 중요한 의식 이전의 자살자수 감소를 확인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Phillips & Liu, 1980). 특히 연휴앞뒤 기간을 연결한 7일간의 자살양상은, 월요일에 자살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이후로 점차 감소하다가 일요일에 약간 상승하는 요일 양상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연휴기간 이전 3일과 연휴 당일에서는 토, 일요일의 양상이, 이후 3일간에서는 자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월요일의 양상이 나타난다(Gabennesch, 1988). 주요 연휴와 스포츠 행사 기간의 자살양상에 대한 연구도 있었으나, 거의 동일한 결과만을

<그림 1> 미국 연휴기간 자살양상의 두 가지 형태



자료: Phillips and Wills (1987).

확인하였고 스포츠 행사의 Death Dip 효과는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Curtis, Loy & Karnilowicz, 1986). 주요 연휴기간의 자살양상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연휴기간 자살양상을 <그림 1>과 같이 Type 1과 Type 2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Phillips & Wills, 1987). Type 1의 양상은 연구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선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연휴당일의 양상에 대한 결과는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국내의 연구는 2003년 사망원인통계 자료만을 사용하여 일별 자살변동을 분석한 것이 유일하다(박상화·임달오, 2006). 이 연구는 연휴기간 자살양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2003년도 구정과 추석에 자살자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정, 구정, 추석, 그리고 명절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휴일로 자리 잡은 성탄절을 연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정된 연휴의 성격이 상이하다.

연휴별로 살펴보면, 우선 신정과 구정은 시기상 대개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가족을 중심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연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제사, 세배 등의 의식을 통해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평소보다 증가하여 가족사회통합이 강화된다. 더불어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새해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는다. 때문에 사회전반에 걸

쳐 통합의 정도가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추석 또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전통농경사회의 성격과 의식들이 신정, 구정에 비해 보다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물론 농작물의 풍요를 축하하기 위한 전통놀이나 행사들은 그 규모나 의미, 참여가 크게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추석만의 전통 의식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이 시기는 '민족 대이동' 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어떠한 연휴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동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추석은 사회통합의 상승정도가 다른 연휴보다 클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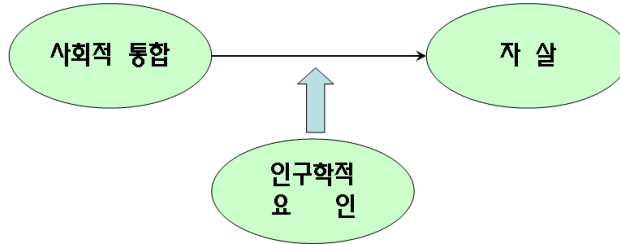
의미나 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신정, 구정, 추석은 비슷한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사회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사고와 상호작용이 활발히 발생하여 사회 통합정도가 높아진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의식들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됨으로서 사회적 통합이 증대된다. 따라서 신정, 구정, 추석은 Etzioni의 재통합 연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종교상의 이유로 제사와 같은 전통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 또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러나 가족에 중점을 두고 의미를 부여한다.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시자가 상존하는 상황이 되며, 상황적 동기는 줄어든다. 그러므로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자살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감소양상에는 혼인상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휴의 분위기나 의미는 자살 의도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연휴기간 자살자수의 감소는 무배우자 보다는 유배우자에게서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세대에 따라 명절이 가진 전통과 가족적 가치의 중요도가 다르게 다가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연령층에서 확인한 감소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들어 독거노인 중 일부가 연휴기간 동안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자살하는 사례도 종종 보도되지만, 그 수는 미미하여 전체적인 양상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성탄절은 전통적인 기반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의 성탄절은 특정 종교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기 때문에 전통성을 가지기 힘들다. 또한 젊은이들 중심의 분위기가 조성된다. 거리의 분위기는 밝지만, 많

1) 전통사회에서 명절에 존재하는 세시풍속의 기능으로 종교적 기능, 윤리적 기능, 사회적 기능, 정치적 기능, 오락적 기능, 예술적 기능, 생산적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산업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능으로 만남의 기능, 소속확인 기능, 전통문화의 보존적 기능이 첨가된다. 특히 만남의 기능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의 사회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김명자, 2004).

<그림 2> 연휴기간 자살양상에 대한 연구모형



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생업을 잠시 중단하는 추석과는 달리, 성탄절에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성행한다. 따라서 성탄절은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한 이벤트성이 강한 연휴로 구분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 성탄절은 Etzioni의 긴장-관리 연휴의 특징들이 작동될 것으로 보이며, 연말 분위기를 타고 사회의 분위기가 상승됨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통합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탄절 이후부터 신정 당일까지의 연속된 기간에는 자살자수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에 머물 것으로 판단된다.

연휴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살양상 또한 혼인상태, 연령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기본적으로 신정, 구정, 추석은 연휴당일까지 자살자수가 감소하는 Type 1 양상을, 성탄절은 Type 2의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 하여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연휴 이전과 연휴 당일에는 자살자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 가설 2: 연휴 이후에는 자살자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단, 성탄절 이후 3일에서는 자살자수가 감소할 것이다.
- 가설 3: 신정, 구정, 추석 등의 연휴기간 중 유배우자의 자살자수 감소폭은 무배우자에 비해 클 것이다.
- 가설 4: 신정, 구정, 추석 등의 연휴기간 동안 자살자수의 감소는 높은 연령대에서 나타날 것이다.
- 가설 5: 성탄절에는 젊은 연령대의 자살자수가 감소할 것이다.

IV.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연휴기간 자살자수의 증감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일별 자살자수와 자살자들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0-2005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핵심변수별 자살자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일별 자살자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연휴 이전 3일, 연휴당일, 연휴 이후 3일 동안 자살자수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총 6년간의 자료이므로, 6번의 신정, 구정, 추석, 성탄절 등을 포함한다. 때문에 자살자수 변화양상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혼인상태는 15세 이상의 유배우자와 무배우자로 구분한다. 무배우자에는 이혼, 사별, 미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연령은 15-29세, 30-59세, 60세 이상 등의 세 범주로 구분한다. 각각 15-29세는 학생, 30-59세는 경제활동인구, 60세 이상은 퇴직 이후의 고령자 등을 주로 포함하므로 성격이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별은 구분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자 자살률이 여자 자살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실업은 남성의 자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남자가 경제적 책임을 지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여전히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tack, 1985). 사회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성별 정체성 차이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의 직업적 정체성은 여전히 가정에 있는 반면 남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직장에 두고 있다. 따라서 남성은 경제적 위기나 직장내부의 문제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당할 확률이 높으며, 은퇴하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이 크게 약화되게 된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대신 좋

<표 1> 성과 연령 및 혼인상태별 자살자수, 2000-2005

(단위: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6,460	6,933	8,631	10,932	11,523	12,047
연령별	15-29세	1,175	1,122	1,224	1,491	1,293	1,602
	30-59세	3,629	3,787	4,674	5,796	6,070	6,045
	60세 이상	1,626	1,990	2,701	3,612	4,118	4,359
혼인 상태별	유배우자	3,308	3,455	4,273	5,461	5,920	5,941
	무배우자	3,134	3,447	4,328	5,407	5,477	5,947

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압력에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정체성 차이로 인하여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자녀가 독립하는 연령대를 기점으로 자살률이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띄게 된다(Girard, 1993).

이러한 모든 요인들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른 자살양상의 차이는 경제활동과 반드시 결부시켜 분석되어야 한다. 연령에 따라 혼인상태와 경제활동 상태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령 또한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첫째, 성별-혼인상태-연령 등을 동시에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할 경우 자살자수가 '0'인 일수가 너무 많아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자료의 한계로 인해 경제활동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²⁾ 셋째, 가족적 가치가 강조되는 연휴시기에 사회적 통합의 영향은 남녀에 상관없이 동일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단기간의 연휴 시기에서 경제활동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혼인상태와 연령만을 따로 구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V. 연구결과

1. 연휴별 평균 자살자수 비교

1) 혼인상태별 자살양상

특정 기간에 자살자수가 감소 혹은 증가했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양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때문에 6년 동안의 계절별 1일 평균 자살자수를 구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혼인상태별 계절별 자살자수 평균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혼인상태별 연휴기간 자살자수 평균은 연휴 이전 3일, 연휴 당일, 연휴 이후 3일로 구분되어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연휴기간 자살자수 평균을 계절별 자살자수 평균과 비교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자살자수가 계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일별 자살 변동을 2003년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름에 자살 빈도가 가장 높고, 가을, 봄, 겨울 순으로 나타난다(박상화·임달오, 2006). 미국의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자살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Gabennesch, 1988), 2006년도 사망원인통계결과에서도 자살빈도는 같은 순서로 낮아진다(통계

2) 일부 연도의 자료에서 가정주부, 군인, 무직을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 2> 혼인상태별 계절별 자살자수 평균, 2000-2005

(단위: 명)

구분	유배우			무배우		
	합계	일 평균	표준편차	합계	일 평균	표준편차
봄	8,135	14.74	5.67	7,926	14.36	5.53
여름	7,826	14.18	5.24	7,627	13.82	5.27
가을	6,228	12.66	5.01	6,058	12.31	4.49
겨울	4,236	10.49	4.28	4,222	10.45	4.29

주: 계절평균 계산에는 연휴 이전 3일, 연휴 당일, 연휴 이후 3일 동안의 자살자수는 포함되지 않음.

<표 3> 혼인상태별 자살자수 평균, 2000-2005

(단위: 명)

구분		유배우		무배우	
		일 평균	표준편차	일 평균	표준편차
신정-3	이전	8.83	4.12	10.83	3.13
신정-2		10.83	10.11	6.31	8.67
신정-1		10.67	5.09	10.33	5.47
신정		8.83	2.56	8.00	1.79
신정+1	이후	9.33	3.08	7.17	5.46
신정+2		8.50	9.56	2.88	8.50
신정+3		10.83	3.13	12.50	5.39
구정-3	이전	10.33	3.67	8.83	2.14
구정-2		7.83	8.89	2.93	8.50
구정-1		8.50	3.78	7.33	3.39
구정		7.72	4.01	8.22	2.78
구정+1	이후	11.33	4.03	10.17	4.58
구정+2		10.00	10.78	2.97	10.50
구정+3		11.00	4.43	10.33	3.50
추석-3	이전	11.33	2.50	11.17	4.58
추석-2		11.33	11.00	5.13	10.33
추석-1		10.33	5.54	10.17	2.14
추석		11.28	4.59	13.22	4.15
추석+1	이후	15.00	5.97	13.33	4.97
추석+2		14.67	14.17	4.50	13.83
추석+3		12.83	5.19	15.50	8.53
성탄절-3	이전	9.83	4.12	7.83	3.87
성탄절-2		11.17	9.94	3.06	8.33
성탄절-1		8.83	1.33	7.50	3.94
성탄절		9.83	2.86	7.33	3.88
성탄절+1	이후	7.67	1.63	8.83	3.31
성탄절+2		8.50	7.72	3.27	8.67
성탄절+3		7.00	2.68	9.00	2.76

주: 계절평균 보다 낮은 수치일 경우 강조하였음.

청, 2007). 따라서 계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가을이나 겨울에 포함되는 연휴의 자살자수 평균은 전체 평균보다 항상 낮을 수밖에 없게 되므로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 가지 더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요일효과이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연구결과 자살자수는 대체로 월요일에 가장 많고, 토요일에 가장 적은 양상을 보인다(Gabennesch, 1988; 박상화·임달오, 2006). 그러나 6번의 연휴동안 설정된 기간이 대체로 거의 모든 요일에 한 번씩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균을 비교할 경우 비교 기준은 계절평균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계절을 봄(3월-5월), 여름(6월-8월), 가을(9월-11월), 겨울(12월-2월)로 설정하였다. 신정, 구정, 성탄절은 겨울에 해당하며, 추석은 가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정, 구정, 성탄절은 겨울평균과 비교하여 얼마나 낮은가, 추석은 가을평균과 비교하여 얼마나 낮은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으며, 연휴 이전 3일, 이후 3일 간의 자살자수 평균을 1일 간격과 3일 간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유배우의 자살양상부터 살펴보면, 신정, 구정, 추석, 성탄절 당일에 자살자수가 평소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휴의 이전 기간에 3일 간격 자살자수 평균은 평소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휴 이후의 기간에서는 2가지 양상이 나타난다. 신정과 성탄절에는 연휴 이후 3일 동안에 자살자수가 평소보다 감소하며, 구정과 성탄절에는 자살자수가 평소보다 증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탄절 이후의 3일은 신정 기간과 연결되기 때문에 긴장완화 연휴가 통합을 증대시키는 방식을 통해 자살의 감소세가 예상되었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빌려 종합하여 보면, 유배우의 경우 신정과 성탄절에서는 Type 2의 양상이, 구정과 추석에서는 Type 1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배우의 자살양상을 살펴보면, 추석을 제외한 나머지 연휴들에서 연휴 당일의 자살자수 감소가 확인되었다. 우선 3일 간격 평균을 살펴보면, 추석 이후 3일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평소보다 자살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신정, 구정, 성탄절은 전 기간에 걸쳐 자살자수 감소양상을 나타내며, 추석은 3일 이전의 감소, 3일 이후의 증가 양상을 확연히 나타내고 있다. 즉, 추석은 연휴당일부터 자살자수가 증가하는 Type 1의 양상을, 나머지 연휴들은 Type 2의 양상을 보인다.

혼인상태별 자살양상을 자살자수 평균으로 살펴본 결과 유배우와 무배우 간에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두 집단에서 신정과 성탄절의 자살양상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구정과 추석에서 구별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유배우의 경우 구정 이후 3일에서 자살자수가 평소보다 높지만, 무배우의 경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배우의 경우 추석에 자살자수가 감소하지만, 무배우의 경우 추석 당일부터 자살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약간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혼인상태에 상관없이 신정연휴 전 기간에 걸쳐 자살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신정 이전 3일의 감소가 특정 하루의 영향이기 때문에 이전 3일 동안의 자살자수가 감소한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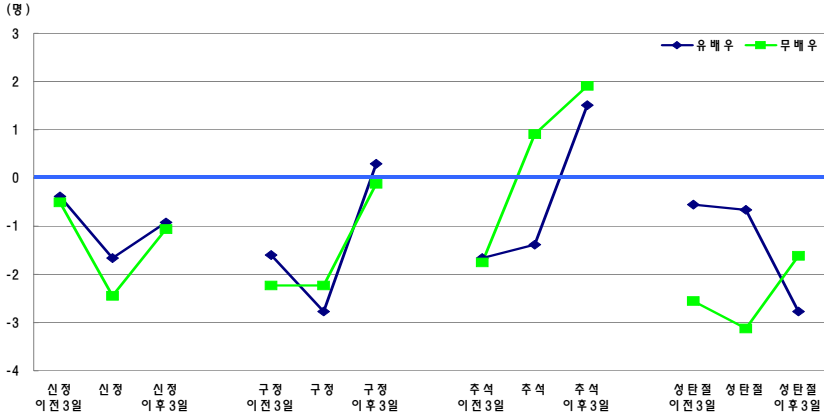
전반적인 양상을 시각적으로 좀 더 명확히 파악해 보기 위해 <그림 3>을 제시하였다. 이 그림에는 <표 3>의 3일 간격 평균 자살자수가 기본 자료로 사용되었다. <그림 3>은 연휴가 포함되는 계절의 자살자수 평균과 각 일의 자살자수 평균의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0을 기준으로, '+'이면 평소보다 특정일에 자살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이면 평소보다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가설대로라면 연휴 당일까지는 '-'의 값을, 연휴 이후에는 '+'의 값을 가져야 한다. 연구가설에서는 감소-감소-증가 양상을 가정하였다.

혼인상태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연휴기간에서 평소보다 자살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인 경우는 추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배우자의 경우 추석 당일부터 평소보다 자살자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소-감소-증가 양상은 구정과 추석 기간의 유배우자에게서 나타난다. 신정 기간에는 차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성탄절 이후 3일까지의 감소세가 신정 이전 3일에 증가하고 있다. 물론 3일 동안의 자살자수 평균은 평소보다 낮지만, <표 3>을 살펴보면 3일 중 2일이 평소와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모든 연도의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특정인에게는 부정적인 시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자살 양상은 평소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성탄절 이후까지 감소했던 자살자수가 신정 이전에 잠시 평소 수준으로 증가했다가, 신정을 맞아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겠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거의 모든 연구대상 기간에서 자살자수의 감소가 나타난다. 둘째, 예상했던 감소-감소-증가 양상은 유배우자에게서 구정과 추석에만 나타난다. 셋째, 무배우자의 경우 추석 당일부터 평소보다 높은 자살자수가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연휴별 자살자수 평균을 계절평균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혼인상태별 자살양상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무배우자가 10-20대에 몰려있고 유배우자가 30-60대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혼인상태별 자살양상은 연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³⁾

계절평균과 특정기간평균을 비교하는 것은 전반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는 있

<그림 3> 혼인상태별 연휴별 자살양상, 3일 간격 평균



지만 연도 간 자살자수의 차이와 요일효과 등을 고려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평균비교의 경우 연휴가 속한 계절의 자살자수 평균이 기준이 되므로, 연휴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특정한 기준을 두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후의 회귀분석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한다.

2) 연령대별 자살양상

연휴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령별로 구분해 보기 위해 혼인상태별 자살에 대한 분석과 동일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가설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휴기간의 자살자수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단, 젊은 연령대의 경우 성탄절에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비교기준이 되는 계절평균은 <표 4>에 제시되어 있으며, 연령별 자살자수 평균은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15-29세 집단을 살펴보면, 구정과 성탄절 당일을 제외하고는 연휴당일의 자살자수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신정과 추석에는 오히려 평소보다 자살자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이전과 이후 3일 간격 평균을 보면, 구정 이후 3일, 추석 이후 3일 이외의 기간에서는 자살자수가 평소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1일 간격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구정 이전 3일간의 자살자수 감소는 특정일의 감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감소 추세에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구정 이후 3일의

3) 혼인상태와 연령을 동시에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젊은 연령대와 고령층의 자살자수가 적기 때문에 자살자수가 '0'인 날이 다수 발생하여 분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표 4> 연령대별 계절별 자살자수 평균, 2000-2005

(단위: 명)

구분	15-29세			30-59세			60세 이상		
	합계	일 평균	표준 편차	합계	일 평균	표준 편차	합계	일 평균	표준 편차
봄	2,321	4.20	2.42	8,427	15.27	5.55	5,354	9.70	4.79
여름	2,184	3.96	2.19	8,163	14.79	5.24	5,179	9.38	4.66
가을	1,633	3.32	1.87	6,497	13.21	4.87	4,200	8.54	4.34
겨울	1,238	3.06	1.90	4,770	11.81	4.39	2,488	6.16	3.53

주: 계절평균 계산에는 연휴 이전 3일, 연휴 당일, 연휴 이후 3일 동안의 자살자수는 포함되지 않음.

<표 5> 연령대별 자살자수 평균, 2000-2005

(단위: 명)

구분		15-29세		30-59세		60세 이상	
		일 평균	표준 편차	일 평균	표준 편차	일 평균	표준 편차
신정-3	이전	2.50	1.38	12.00	3.46	5.00	3.10
신정-2		3.00	2.72	11.33	12.11	5.67	5.33
신정-1		2.67	1.75	13.00	6.45	5.33	2.16
신정		3.33	1.37	9.00	2.37	4.50	1.87
신정+1	이후	2.17	1.72	9.67	3.56	5.00	3.63
신정+2		1.83	2.50	9.33	10.50	5.67	6.00
신정+3		3.50	1.64	12.50	3.94	7.33	2.34
구정-3	이전	3.83	1.83	10.50	3.08	4.83	3.92
구정-2		2.00	3.00	10.67	10.11	4.00	4.11
구정-1		3.17	3.49	9.17	1.83	3.50	2.35
구정		2.56	1.85	9.67	4.26	3.83	2.66
구정+1	이후	3.67	1.21	11.83	4.02	6.00	3.58
구정+2		2.83	3.11	9.83	11.17	7.83	6.89
구정+3		2.83	2.32	11.83	3.97	6.83	2.93
추석-3	이전	3.17	1.33	13.17	3.49	6.33	3.33
추석-2		3.50	3.11	11.33	12.61	6.83	6.06
추석-1		2.67	1.63	13.33	6.06	5.00	3.74
추석		3.83	2.07	12.78	4.28	8.06	4.09
추석+1	이후	3.83	1.94	13.83	5.95	10.67	6.09
추석+2		3.67	3.61	13.83	14.28	11.00	10.50
추석+3		3.33	2.88	15.17	7.55	9.83	3.66
성탄절-3	이전	2.00	1.26	10.33	4.41	5.17	3.37
성탄절-2		1.50	1.56	9.50	9.94	8.50	6.28
성탄절-1		1.17	0.98	10.00	3.16	5.17	1.47
성탄절		1.33	1.03	9.00	3.35	7.17	3.97
성탄절+1	이후	2.00	1.55	9.17	3.19	5.50	2.07
성탄절+2		1.33	1.94	11.33	9.94	4.67	4.89
성탄절+3		2.50	1.38	9.33	1.63	4.50	2.51

주: 계절평균 보다 낮은 수치일 경우 강조하였음.

경우 구정 이후 첫날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3일간의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구정 이후 3일에 자살자수가 평소보다 많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이 연령 집단에서는 성탄절 기간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다른 연휴의 자살양상은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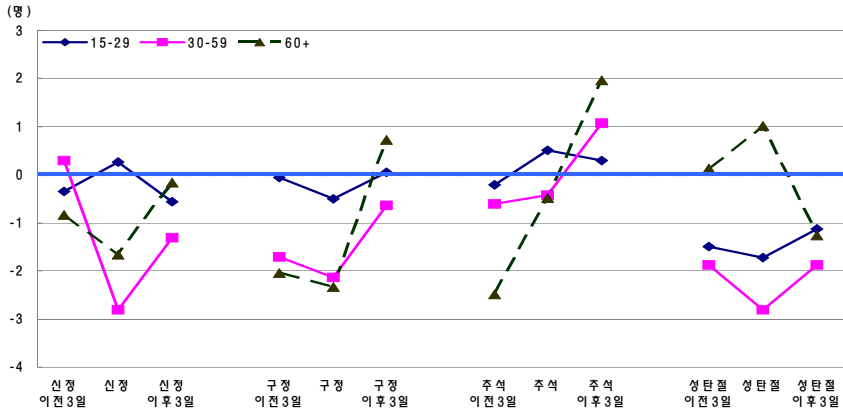
다음으로 중간 연령대인 30-59세 집단의 자살자수 평균을 살펴보면, 일단 모든 연휴의 당일엔 자살자수가 평소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휴 이전과 이후 3일 간격 평균을 살펴보면, 신정 이전 3일, 구정 이후 3일, 추석 이후 3일에는 자살자가 증가하며, 나머지 기간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인다. 젊은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성탄절 기간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구정과 추석에서는 감소-감소-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구정과 추서는 Type 1의 형태를, 성탄절은 Type 2의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신정의 경우 다소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연휴 이전에 평소보다 자살자수가 높아졌다가 연휴 당일 이후로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감소양상이 젊은 연령대에 비해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던 60세 이상의 고령자 집단에서는 신정 전 기간에 걸친 감소양상, 구정과 추서의 감소-감소-증가양상, 성탄절 3일 이후의 감소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연령집단과 다른 점은 성탄절 당일에 오히려 자살자수가 평소보다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높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성탄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생각된다.

분석결과 다섯 가지 주목할 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15-29세 집단에서 성탄절의 자살자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둘째, 60세 이상 집단에서 성탄절 이전 3일과 당일에 자살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30-59세 집단에서 신정 이전 3일 동안 자살자수의 증가추세가 나타난다. 넷째, 3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구정, 추서에 감소-감소-증가 양상이 확연히 나타난다. 다섯째, 모든 연령에서 성탄절 이후 3일에는 자살자수의 감소세를 보인다.

연령별 자살양상을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하기 위해 <그림 4>를 제시하였다. 그림에는 <표 5>의 수치가 사용되었으며, 해석방법은 이전과 동일하다. 연령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우선 15-29세 집단의 경우 성탄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휴에서 평소와 비슷한 자살자수를 보인다. 연휴 당일에는 오히려 평소보다 자살자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반면 성탄절에는 확연하게 자살자수가 감소하고 있다. 중간 연령대의 경우 거의 모든 연휴기간에서 감소세를 보인다. 추석에는 감소-감소-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정에는 성탄절 이후 3일까지 매우 낮았던 자살자수가 신정 이전 3일에 평소보다 약간 많아지는 것으로

<그림 4> 연령대별 연휴별 자살양상, 3일 간격 평균



나타났다. 이 연령집단에서도 성탄절의 감소세가 상당히 두드러진다. 고령자 집단의 경우 60세 미만의 집단과는 차별되는 주목할 만한 양상이 나타난다. 우선 신정 전 기간에서 감소세가 뚜렷하며, 구정과 추석에는 감소-감소-증가의 양상이 확연히 나타난다. 특히 연휴 당일 이후의 증가폭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탄절에는 다른 연령 집단과 거의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성탄절 이전 3일부터 성탄절 당일까지 평소보다 자살자수가 많으며, 이후 3일 동안 급격히 감소한다.

세대차이가 확연한 15-29세 젊은 연령대와 60세 이상 고령자 집단의 자살양상을 비교해 보면, 자살양상 또한 세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연령대 집단은 성탄절을 제외하고는 연휴에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는 반면, 고령자 집단은 전체적으로 명확한 감소 혹은 감소-감소-증가 양상을 나타낸다. 고령자 집단의 경우 성탄절에는 오히려 자살자수가 평소 수준 이상이며,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야 감소세가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들을 보다 명확히 하고, 통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회귀분석 결과

혼인상태, 연령 등에 따른 특정 기간별 자살자수의 평균은 계절평균을 기준으로 놓고 비교할 경우 분명 그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자살의 요일별 편차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2000-2005년 사이 총 6년간의 자료임을 감안한다면, 연도별 편차 또

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회귀분석을 사용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한다.

분석단위는 2000-2005년도 사이 총 2,192일 간의 일별 자살자수이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연속변수가 없기 때문에 차선택으로 더미변수를 사용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⁴⁾ 분산분석도 가능하지만, 분산분석은 단지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줄 뿐이며, 자료의 추세분석을 목적으로 할 경우 회귀분석이 보다 바람직하다(김두섭·강남준, 2000).

먼저 요일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요일을 월화, 수목금, 토일 등의 세 범주로 나누어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요일별 자살양상은 대체로 월요일에 자살자수가 가장 많고 주말에 가장 적은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하루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세 범주로 구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요일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더불어 계절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더미변수로 만들어 투입하였다. 연도의 경우 각 연도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은 총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⁵⁾. 우선 연휴 이전과 이후의 기간을 3일 간격으로 구분하고 모든 기간을 더미변수로 만들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한번의 회귀분석에 모든 기간이 구분되어 투입되므로 자살양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로, 모든 연휴를 하나로 통합하여 연휴 이전과 이후를 1일 간격으로 구분한 후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분석은 평균 자살자수 분석에서 발생한 기준부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혼인상태별 자살양상

혼인상태별 자살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연휴 전후 기간을 3일 간격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통제를 위해 사용한 더미변수의 회귀분석 결과부터 살펴보면, 요일의 경우 월요일에 가장 많은 자살이 발생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가장 적은 자살이 발생하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절별 편차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자살자수가 줄어드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도별로는 <표 1>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2005년으로 갈수록 자살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4) 더미변수만을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beta값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b값, 표준오차, F비 그리고 R2만을 제시하였다.

5) 석사논문에서는 총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휴 앞뒤의 기간을 1일 간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연휴별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가장 핵심적인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표 6> 혼인상태별 자살양상에 대한 회귀분석, 3일 간격

구분	유배우		무배우	
	B	S.E	B	S.E
신정-3	-0.32	0.96	-0.46	0.96
신정	-1.63	1.64	-2.44	1.64
신정+3	-0.93	0.96	-1.06	0.96
구정-3	-1.53	0.96	-2.17**	0.96
구정	-2.78**	0.96	-2.24**	0.96
구정+3	0.40	0.96	-0.03	0.96
추석-3	-1.48	0.96	-1.61*	0.96
추석	-1.50	0.96	0.81	0.96
추석+3	1.55	0.96	1.94**	0.96
성탄절-3	-0.49	0.96	-2.52**	0.96
성탄절	-0.63	1.64	-3.11*	1.64
성탄절+3	-2.81**	0.96	-1.66*	0.96
수목금	-0.65**	0.21	-0.56**	0.21
토일	-1.58**	0.23	-1.33**	0.23
여름	-0.56**	0.24	-0.54**	0.24
가을	-2.08**	0.25	-2.05**	0.25
겨울	-4.26**	0.26	-3.91**	0.26
2001	0.41	0.30	0.87**	0.30
2002	2.66**	0.30	3.28**	0.30
2003	5.91**	0.30	6.24**	0.30
2004	7.13**	0.29	6.40**	0.29
2005	7.23**	0.30	7.72**	0.30
상수	11.58**	0.29	10.89**	0.29
F 비	79.95**		75.88**	
R2	0.45		0.44	

주: 1) * p<.10, ** p<.05.

2) 기준은, 연휴기간 vs. 나머지 기간 / 월화 vs. 수목금-토일 / 봄 vs. 각 계절 / 2000년 vs. 각 연도.

확인되었다. 유배우의 경우 2001년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2000년과 2001년의 총 자살자수 차이가 약 500명밖에 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제를 위한 요일, 계절, 연도 변수는 그 양상이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의 모든 회귀분석에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유배우자의 연휴별 자살양상을 <표 6>을 통해 살펴보면, 구정 당일과 성탄절 이후 3일에서만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난다. 반면 무배우자의 경우 구정 이전 3일부터 구정 당일까지, 추석 이전 3일, 성탄절 전 기간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다. 추석 이후 3일에서는 자살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의 경우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평소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 비교에서는 추석당일에 무배우자 자살자의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통계

<표 7> 혼인상태별 자살양상에 대한 회귀분석, 연휴통합

구분	유배우		무배우	
	B	S.E	B	S.E
-3	-0.43	1.64	-2.34	1.62
-2	-0.53	0.83	-1.73**	0.82
-1	-1.37*	0.83	-1.97**	0.82
연휴	-1.85**	0.59	-1.17**	0.58
+1	-0.20	0.83	-1.00	0.82
+2	-0.58	0.83	-0.47	0.82
+3	-0.37	0.83	1.17	0.82
수목금	-0.66**	0.21	-0.57**	0.20
토일	-1.58**	0.23	-1.35**	0.22
여름	-0.56**	0.24	-0.54**	0.24
가을	-2.03**	0.24	-1.93**	0.24
겨울	-4.35**	0.25	-4.08**	0.25
2001	0.41	0.30	0.87**	0.29
2002	2.65**	0.30	3.28**	0.29
2003	5.91**	0.30	6.24**	0.29
2004	7.13**	0.30	6.40**	0.29
2005	7.23**	0.30	7.72**	0.29
상수	11.58**	0.29	10.90**	0.28
F 비	102.13**		97.07**	
R2	0.44		0.43	

주: 1) * $p < .10$, ** $p < .05$.

2) 기준은, 연휴기간 vs. 나머지 기간 / 월화 vs. 수목금-토일 / 봄 vs. 각 계절 / 2000년 vs. 각 연도.

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연휴를 하나로 통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 유배우의 경우 연휴 당일과 1일 이전, 무배우의 경우 연휴 당일과 1일, 2일 이전에서 자살자수의 유의미한 감소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연구가설에서 설정하였던 연휴 이후의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살자수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감소-감소-증가 양상이 추석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휴 이후의 자살자수 증가는 추석에 무배우자에게서만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이 Type 2의 양상을 가지는 다른 연휴와 통합되면서 상쇄된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비교와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혼인상태별로는 자살양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에서는 추석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간에서 자살자수의 감소양상이 나타났지만, 회귀분석 결과 구정과 성탄절의 자살자수 감소만이 유의미하다. 평균비교에서 혼인상태별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냈던 추석 기간의 양상은 회귀분석 결과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추석이 혼인상태에 따라 다

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해석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살의 지연으로 인해 연휴 이후의 기간에 자살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평균 비교에서도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그러한 양상은 찾기 힘들다. 이러한 결과는 연휴의 영향이 당일로서 당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연휴 이후의 시기는 감시자 유무의 상황에서 볼 때 상황적 동기가 저지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 이후에 자살자수가 감소하는 기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연휴의 영향이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성탄절의 명확한 감소세는 예상 밖의 결과로 보인다. 성탄절이 가지는 의미가 젊은 세대에게 크게 다가가기 때문에 연령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으나, 혼인상태에 상관없이 성탄절 전 기간에 걸쳐 평소보다 자살자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결과는 연령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통해 좀 더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연령대별 자살양상

연령대별 자살양상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표 8>은 연휴 이전과 이후를 3일 간격으로 구분하여 각 연령대 별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15-29세 집단에서는 성탄절 전 기간에 걸쳐 자살자수의 유의미한 감소가 확인되었다. 나머지 연휴 기간에서는 어떠한 증감도 발견되지 못했다. 중간 연령대인 30-59세 집단에서는 신정, 구정, 성탄절 당일에서 유의미한 감소세가 나타났다. 구정의 경우 구정 이전 3일에서도 자살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탄절에는 전 기간에 걸쳐 평소보다 자살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집단인 6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구정 이전 3일, 구정 당일, 추석 이전 3일, 성탄절 이후 3일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확인되었다. 추석 이후 3일에서는 다른 연령 집단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자살자수의 증가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든 연휴를 통합하여 연휴 이전과 이후를 1일 간격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회귀분석 결과는 연령별 자살양상의 차이를 가정한 연구가설 2번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젊은 연령대인 15-29세 집단에서는 전 연휴기간에서 감소양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30-59세 집단에서는 연휴 당일의 자살자수 감소가 확인되며, 60세 이상의 고령자 집단에서는 연휴 1일 이전부터 연휴 당일까지 자살자수의 유의미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자살양상의 연령별 차이를

<표 8> 연령대별 자살양상에 대한 회귀분석, 3일 간격

구분	15-29세		30-59세		60세 이상	
	B	S.E	B	S.E	B	S.E
신정-3	-0.33	0.49	0.35	0.99	-0.79	0.78
신정	0.28	0.84	-2.80	1.69	-1.64	1.34
신정+3	-0.56	0.49	-1.30	0.99	-0.16	0.78
구정-3	-0.04	0.49	-1.65	0.99	-2.00**	0.78
구정	-0.51	0.49	-2.14**	0.99	-2.34**	0.78
구정+3	0.08	0.49	-0.55	0.99	0.80	0.78
추석-3	-0.15	0.49	-0.43	0.99	-2.37**	0.78
추석	0.48	0.49	-0.54	0.99	-0.56	0.78
추석+3	0.30	0.49	1.11	0.99	1.98**	0.78
성탄절-3	-1.49**	0.49	-1.82	0.99	0.16	0.78
성탄절	-1.72**	0.84	-2.80	1.69	1.02	1.34
성탄절+3	-1.14**	0.49	-1.90	0.99	-1.31	0.78
수목금	-0.19	0.11	-0.66**	0.21	-0.36**	0.17
토일	-0.48**	0.12	-1.42**	0.23	-1.02**	0.18
여름	-0.25**	0.12	-0.48	0.25	-0.32	0.20
가을	-0.89**	0.13	-2.06**	0.26	-1.16**	0.20
겨울	-1.14**	0.13	-3.46**	0.27	-3.54**	0.21
2001	-0.14	0.15	0.45	0.30	1.00**	0.24
2002	0.14	0.15	2.88**	0.30	2.95**	0.24
2003	0.87**	0.15	5.95**	0.30	5.44**	0.24
2004	0.32**	0.15	6.67**	0.30	6.81**	0.24
2005	1.18**	0.15	6.64**	0.30	7.49**	0.24
상수	4.03**	0.15	12.19**	0.30	6.20**	0.24
F 비	13.34**		62.17**		99.32**	
R2	0.12		0.39		0.50	

주: 1) * p<.10, ** p<.05.

2) 기준은, 연휴기간 vs. 나머지 기간 / 월화 vs. 수목금-토일 / 봄 vs. 각 계절 / 2000년 vs. 각 연도.

가정한 가설 4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특정 연령대에서 확인된 연휴 3일 이후의 증가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연휴 간 차별되는 양상이 상쇄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평균비교와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령대에 따라 차별적인 자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연령대인 15-29세 집단과 고령자 집단인 60세 이상 집단 간의 양상 차이는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정과 추석, 성탄절에서의 양상은 거의 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회귀분석 결과 또한 그러하다. 전통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것으로 간주되는 추석기간의 양상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고령자 집단만이 유의미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1일 간격, 3일 간격 회귀분석 결과에서 모두 아무런 증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대로 성탄절에는 15-59세 집단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60세 이상 집단의 경우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

<표 9> 연령대별 자살양상에 대한 회귀분석, 연휴통합

구분	15-29세		30-59세		60세 이상	
	B	S.E	B	S.E	B	S.E
-3	-0.97	0.84	-1.22	1.69	-0.83	1.34
-2	-0.55	0.42	-1.25	0.86	-0.34	0.68
-1	-0.67	0.42	-0.70	0.86	-1.93**	0.68
연휴	-0.18	0.30	-1.66**	0.61	-1.12**	0.48
1	-0.20	0.42	-1.02	0.86	0.05	0.68
2	-0.69	0.42	-1.03	0.86	0.58	0.68
3	0.00	0.42	0.28	0.86	0.55	0.68
수목금	-0.19	0.11	-0.66**	0.21	-0.38**	0.17
토일	-0.48**	0.12	-1.42**	0.23	-1.03**	0.18
여름	-0.25**	0.12	-0.48	0.25	-0.32	0.20
가을	-0.84**	0.12	-1.96**	0.25	-1.15**	0.20
겨울	-1.20**	0.13	-3.59**	0.26	-3.63**	0.21
2001	-0.14	0.15	0.45	0.31	1.00**	0.24
2002	0.14	0.15	2.88**	0.31	2.95**	0.24
2003	0.87**	0.15	5.95**	0.31	5.44**	0.24
2004	0.32**	0.15	6.67**	0.30	6.81**	0.24
2005	1.18**	0.15	6.64**	0.31	7.49**	0.24
상수	4.03**	0.15	12.19**	0.30	6.21**	0.24
F 비	16.42**		79.86**		126.17**	
R2	0.11		0.38		0.50	

주: 1) * p<.10, ** p<.05.

2) 기준은, 연휴기간 vs. 나머지 기간 / 월화 vs. 수목금-토일 / 봄 vs. 각 계절 / 2000년 vs. 각 연도.

러한 결과들은 연휴를 받아들이는 세대 간 가치관 차이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신정, 구정, 추석 등의 명절이 가지는 의미는 미약하며 반대로 고령자들에게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연휴에 강조되는 가족적 가치가 세대에 따라 차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탄절에 젊은 연령대에서 자살자수 감소세가 나타나는 것은 세가지 정도의 이유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시기가 이벤트성이 강하기는 하지만, 첫째, 대상이 젊은 연령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따라서 젊은 층 내부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발생하고, 셋째, 만남의 기능이 강조되는 연휴시기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이 수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인상태별 자살양상 분석에서 성탄절의 자살자수 감소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세대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15-59세 집단의 양상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자살양상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연령을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0-59세의 자살양상은 위 세대와 아래 세대의 양상이 조금씩 혼합되어 나오고 있는데,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된다. 첫째, 넓은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 가치관 차이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둘째, 연령대 구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세대의 가치관 형성시기가 상당히 과도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쟁을 경험한 60세 이상의 세대와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발전의 이룩한 후 출생한 세대와의 가치관은, 사회적 환경, 당시의 주도적인 가치관, 교육내용 등의 측면에서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30-59세의 세대는 이러한 변화의 가운데에 서 있는 세대이며 따라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차별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단순히 자살양상에 대한 분석결과로서 복잡한 가치관의 문제를 다루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만약 어느 정도 명확한 세대구분을 할 수 있다면 자살양상 또한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모든 연령집단에서 성탄절 이후로 자살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연말에 사회적 통합을 강화시키는 기제가 긴장완화 연휴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성탄절이나 신정에 대한 세대 간 태도차이와는 관계없이, 다가오는 새 해를 맞아 전반적으로 사회적 통합이 강해지는 시기로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표 8>에서 성탄절 3일 이후의 자살자수 감소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성탄절 이후의 기간에는 혼인상태나 연령과는 관계없이 자살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I. 결론 및 논의

한국 사회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다. 동시에 경제 발전이 수반하는 사회 각 영역의 변동 또한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져 왔다. 더군다나 1997년 말의 외환위기와 같은 극심한 변화는 사회 각 부분의 혼란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상황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통합정도는 과거에 비해 확연히 약해졌다고 생각된다. 물론 근대 한국의 역사에서 안정적인 시기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불안정한 시기에도 사회적 통합은 모든 역경을 이겨낼 정도로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 변동은 왜곡된 서구의 개인주의와 결합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확대되는 개인주의, 무너지는 가족적 가치, 물질 만능주의 등이 한국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사회적 통합 정도와 자살간의 상관관계를 주장한 뒤 르쟁의 입장에서, 점차로 높아져만 가는 자살률은 한국 사회의 통합정도에 강

한 의문을 가지도록 만든다.

대부분의 자살 관련 연구들은 왜 자살률이 높아져 가는가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높은 자살률을 어떻게든 감소시킬 방안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자살 증가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사회적 통합의 약화에 있다고 생각된다. 뒤르켐의 주장은 결국,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심, 사랑, 대화 등이 활발해진다면 그 사회는 안정될 수 있고, 이러한 사회 안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살은 분명 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개인적인 행위 중 하나이지만, 이것을 사회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사회적 통합이 강한 시기에 자살은 분명 감소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통합이 충분히 강화된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실제로 자살이 감소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다. 증가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느 집단에서, 왜 감소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행한다면, 증가하는 자살률의 원인을 역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연휴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식이나 행사를 통해 공통된 가치로 사회를 끌어간다는 점에서 사회적 통합이 강화되는 시기로 생각된다. 연휴가 가지는 이러한 사회적 통합의 기능에 주목하여 신정, 구정, 추석, 성탄절 기간에 자살자수가 평소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유배우자인 경우, 나이가 많은 경우에 감소양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단,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고 젊은 연령대에게 의미가 큰 성탄절 기간에는 젊은 연령대의 자살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0-2005년 사망원인통계를 가공하여 일별 자살자수를 혼인상태별, 연령대별로 구분하였다. 분석과정은 먼저 연휴이전과 당일, 이후를 1일 간격 혹은 3일 간격으로 구분하여, 기간별 평균 자살자수를 계절평균과 비교하였다. 이후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한 핵심적인 결론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혼인상태에 상관없이 연휴에 자살자수가 감소한다. 자살양상은 혼인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둘째, 자살양상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전체 연휴기간을 통합한 결과, 젊은 사람들 보다는 나이든 사람들에게서 연휴기간에 자살자수의 감소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젊은 연령대에서 성탄절 기간에 자살자수의 감소가 명확히 나타나며, 고령자 집단의 경우 성탄절에 오히려 자살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연말에는 혼인상태나 연령에 상관

없이 모든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자살자수가 감소한다. 넷째, 연구가설에서 가정하였던 자살자수의 감소-감소-증가의 양상은 규칙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구정과 추석 이후 3일간 일부 집단에서 자살자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일반화시킬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부가적으로 자살빈도는 봄-여름-가을-겨울의 순으로, 월화-수목금-토일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결과는 연휴기간에 자살자수가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자신과 인생을 함께하는 가족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 연휴기간에 가족의 의미를 보다 깊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으나, 혼인을 했건 안했건 간에 모든 개인은 모든 가족의 핵심 구성원 이므로 가족형성 여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살방지기제로서의 가족 영향력의 영역이 그만큼 넓고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

하지만 연령대로 구분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휴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휴에 강조되는 가족적 가치, 의식 참여 등을 받아들이는 세대의 경우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강화시키며, 이것은 자살방지 기제로 작동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연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휴에 강조되는 요인들이 자살을 방지한다는 점이다. 연휴는 전통적인 의식이나 가치의 강조를 통해 한해 중 그 어떠한 시기보다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선명해진다. 강화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그동안 가족의 의미를 잊고 살던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쯤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게 만든다. 때문에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도 연휴기간에는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자살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연휴에서 자살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자살양상의 차이는 세대에 따라 사회 통합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특히 연휴의 의미를 강하게 받아들이는 고연령층에게는 뒤르켁과 Etzioni의 재통합적 연휴기능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들의 주장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연휴에 강조되는 전통적인 가족적 가치와 상반되는 개인주의적 가치 속에서 살아왔다. 이들에게 연휴는 전통 문화를 접하고 가족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기라기보다는, 휴일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연휴에 이루어지는 의식들이 점진적으로 사적 영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개인적인 행위가 중심이 되고 가족과의 시간 혹은 의식은 부차적인 것으로 되어간다. 이 벤트 성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성탄절 기간에만 젊은 사람들의 자살이 눈에 띄

게 감소하는 결과는 이러한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사회적 통합을 논함에 있어서는 전통과 의식에 기반 한 통합을 말하기 보다는 개인 중심적인 ‘재미’와 같은 요인을 중심으로 통합을 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수의 광고, 방송 프로그램, 이벤트 등이 단순한 ‘재미’에 목매고 있다는 점도 이와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이벤트 성격이 강한 성탄절에 젊은 이들의 자살이 감소하는 사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통합이 강했던 2002년 월드컵을 상기시켜본다면 결국 현재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젊은 연령대의 통합은 Etzioni나 뒤르켐이 말하는 통합방식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통합이 자살을 방지하는 자살면역체계로서 작동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나, 통합은 세대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 의식과 가치 등을 중요시하는 고연령 세대의 경우, 연휴 등에 강조되는 가족적 가치가 이들의 통합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젊은 연령층의 경우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재미 혹은 이벤트와 같은 요인들이 통합을 강화시키는 기제로서 작동한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통합정도는 자살면역체계로 작동한다. 연령대에 따라, 연휴에 따라 차별적인 자살양상이 나타나는 이 연구의 결과는 세대 간 사회적 통합이 강화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는 결과이다. 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은,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 가족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경우 성탄절에만 자살자수의 감소세가 나타나며, 가족적 가치가 강조되는 나머지 연휴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노인들이 외로움으로 인해 명절에 자살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연구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 퇴색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족적 가치의 회복은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곧, 가족적 가치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과 어떻게 맞추어 나갈 것인가, 이것이 현재의 한국 사회가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두섭·강남준 (2000)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나남출판.
 김명자 (2004) “세시풍속의 전승과 현대화 방안 모색” 《민속연구》 13:

145-166.

- 김용분 · 이정섭 (2003) “자살 개념분석” 《정신간호학회지》 12(4): 394-401.
- 뒤르카임(Emile Durkheim) (1897) 《자살론》 김충선 역(1994) 청아출판사.
- 박경애 (1996) “성(Gender)과 자살” 《가족과 문화》 창간호: 149-171.
- 박상화 · 임달오 (2006) “우리나라 일별 자살의 변동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연구》 32(1): 35-40.
- 박종순 · 김순덕 · 지선미 · 이제숙 (2003) “우리나라 자살률의 추세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역학회지》 25(2): 84-91.
- 심영희 (1986) “한국사회의 자살: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이론과 실태” 《정신건강연구》 4: 49-71.
- 오진경 · 조영태 · 김창엽 (2005) “2000년 우리나라 성인 자살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보건과 사회과학》 18: 191-210.
- 은기수 (2005)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인구학》 28(2): 97-129.
- 이귀행 (2004) “자살의 심리학적 측면” 《생물치료정신의학》 10(1): 11-14.
- 제영묘 (2004) “자살과 정신 장애” 《생물치료정신의학》 10(1): 3-10.
- 통계청 (2006) 《2005년 사망원인통계결과》
_____ (2007) 《2006년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결과》
- Bollen, K. A (1983) “Temporal Variations in Mortality: A Comparison of U. S. Suicides and Motor Vehicle Fatalities, 1972-1976” *Demography* 20(1): 45-59.
- Breault, K. D. (1986) “Suicide in America: A test of Durkheim’s Theory of Religious and Family Integration, 1993-1980”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3): 628-656.
- Cohen, L. E. and M.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4): 588-608.
- Curtis, James, John Loy, and Wally Karnilowicz (1986) “A Comparison of Suicide-dip Effects of Major Sports Events and Civil Holidays” *Sociology of Sports* 3(1): 1-14.
- Curtright, Phillips and Robert M. Fernquist (2000) “Effects of Societal Integration, Period, Region, and Culture of Suicide on Male

- Age-Specific Suicide Rates: 20 Developed Countries, 1955-1989” *Social Science Research* 29(1): 148-172.
- Danigelis, Nick and Whitney Pope (1979) “Durkheim’s Theory of Suicide as Applied to the Family: An Empirical Test” *Social Forces* 57(4): 1081-1106.
- Etzioni, Amitai (2000) “Toward a Theory of Public Ritual” *Sociological Theory* 18(1): 44-59.
- Fernquist, Robert M. (2007) “How do Durkheimian Variables Impact Variation in National Suicide Rates When Proxies for Depression and Alcoholism are controlled?”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1(4): 361-374.
- Fernquist, Robert M. and Phillips Curtright (1998) “Societal Integration and Age-Standardized Suicide Rates in 21 Developed Countries, 1955-1989” *Social Science Research* 27(2): 109-127.
- Gabennesch, Howard (1988) “When Promises Fail: A Theory of Temporal Fluctuations in Suicide” *Social Forces* 67(1): 129-145.
- Girard, Chris. 1993. “Age, Gender, and Suicide: A Cross National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4): 553-574.
- Gove, Walter R. (1972) “Sex, Marital Status and Suicid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3(2): 204-213.
- Jessen, Gert and Børge F. Jensen (1999) “Postponed Suicide Death? Suicides around Birthdays and Major Public Holiday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9(3): 272-283.
- Krull, Catherine and Frank Trovato (1994) “The Quiet Revolution and the Sex Differential in Quebec’s Suicide Rates: 1931-1986” *Social Forces* 72(4): 1121-1147.
- Osgood, D. W., J. K. Wilson, P. M. O’Malley, J. G. Bachman, and L. D. Johnston (1996) “Routine Activities and Individual Deviant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4): 635-655.
- Phillips, D. P. and John S. Wills (1987) “A Drop in Suicides around Major National Holiday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7(1): 1-12.
- Phillips, D. P. and Judith Liu (1980) “The Frequency of Suicides around Major Public Holidays: Some Surprising Finding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0: 41-50.

- Phillips, D. P. and K. A. Feldman (1973) "A Dip in Deaths before Ceremonial Occasions: Some New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Integration and mort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6): 678-696.
- Phillips, D. P. (1974) "The Influence of Suggestion on Suicide: Substantive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Werther Effe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3): 340-354.
- Stack, Steven (1980) "The Effects of Marital Dissolution on Suicid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1): 83-92.
- _____ (1985) "The Effect of Domestic/Religious Individualism on Suicide, 1954-1978"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2): 431-447.
- _____ (2000) "Suicide: A 15-Year Review of the Sociological Literature Part I: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2): 145-162.
- _____ (2000) "Suicide: A 15-Year Review of the Sociological Literature Part II: Modernization and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2): 145-162.
- Travis, Robert (1990) "Halbwachs and Durkheim: A Test of Two Theories of Suicid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1(2): 225-243.
- Trovato, F. (1998) "The Stanley Cup of Hockey and Suicide in Quebec, 1951-1992" *Social Forces* 77(1): 105-127.

[2007. 12. 7 접수 | 2008. 3. 19 채택]

Social Integration and Suicide: The Effects of Holidays on a Decrease in Suicide

Seungyong Ha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uicide pattern during major holidays which are considered to be in high social integration - New Year's Day, Lunar New Year's Day, Harvest Festival (Chuseok) and Christmas. To confirm suicide patterns, this study hypothesized firstly, the number of suicides would decrease before and on each holiday, and secondly, the number of suicides would increase after each holiday. In detail, this study postulated different patterns by marital status and age groups. Utilizing "Causes of Death Statistics" from 2000 to 2005, the number of suicides by marital status and age group on each day is calculated and categorized by holiday. There are four major findings. First,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uicides during holiday periods is significant. Second, different suicide patterns by marital status are not found. Third, the difference in suicide patterns by age groups is significant. Specifically, there i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suicides of the old during Lunar New Year's Day and Harvest Festival (Chuseok).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changes in the number of suicides of the young during the same periods. Fourth, a decrease in the number of suicides regardless of marital status and age is found at the end of a year. These results mean that increased social integration is functioned as a "suicide immune system." However, each generation has its own main factor that increases social integration.

Key Words: suicide patterns, holidays, social integration, marital status, age group, family values